

SK엔론, 대표이사에 고보상 전무 선임

SK엔론은 1월7일 이사회를 열고 고보상 전 SK 전무(55)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고보상 대표는 연세대 화공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 SK에 입사해 화학사업팀장, 윤활유사업 담당임원 등을 거쳤다.

SK엔론은 SK와 미국 에너지기업 Enron이 50대50 지분으로 합작한 순수 지주회사로 대한도시가스등 9개 도시가스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3/ 01/ 10 >